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성별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민아\*\*

### 초 록

이 연구는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상정하고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8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주관적 안녕을 가졌다. 이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벨(sobel)검증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간접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낮추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차별적 노출론(differential exposure)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라 두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과 성별과 연령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감소하나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이 되어도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과 남성 간의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과 여성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음을 함의한다. 범죄에 대한 성별화된 두려움이 제거된다면 여성의 주관적 안녕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성차, 주관적 안녕,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억제효과, 차별적 노출론

\* 이 연구는 2020년 5월에 있었던 <불평등 연구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불평등 연구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malee@cau.ac.kr)

## I. 서론

지난 십년 간 한국사회에서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과 강도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독 성폭력 범죄만 증가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살인은 849건(인구 10만명당 1.6건), 강도는 841건(인구 10만명당 1.6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각각 41.3%, 87.3%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2018년 기준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32,104건(인구 10만명 당 61.9건)이었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결과이다(대검찰청, 2019).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다. 2018년에 일어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87.58%(성별미상 제외한 수치)가 여성이었으며 그 중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sup>1)</sup>. 성폭력 범죄의 절대적인 발생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전체 흉악 강력범죄의 피해자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이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Dario & O'Neal, 2018; Leone & Carroll, 2016).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단지 피해자만이 아닌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까지 상승시키는, 즉 범죄 일반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Ferraro, 199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을 일으켜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Wallace, 2012)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등의 주관적 안녕의 수준을 낮춘다(Alfaro-Beracoechea et al., 2018; Lorenc et al., 201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박철현, 2014),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에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갖는다면 이것이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차별적 노출론(differential exposure theory)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차별적 노출론

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총 26,787건 중에서 신원 불상인 1,013건을 제외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3,160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22,614건이었다.

은 생애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 위협 등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성별에 따라 상이한 노출정도는 여성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Bird, 1999; Bird & Rieker, 2008)<sup>2)</sup>.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지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차별적 노출론과 달리 차별적 취약성론(differential vulnerability theory)은 여성이 남성보다 특정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더 자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나 안녕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부정적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Roxburgh, 1996).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스트레스요인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회복탄력성이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에 간접효과를 갖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접효과가 존재한다면 이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차별적 노출론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분석초점과는 달리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면 이는 차별적 취약성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증하여 어떠한 접근이 더 타당한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적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성별과 연령 등의 효과를 검증하여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맥락

2) 물론 여성 집단 내에서도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따라 스트레스유발 요인에 대한 노출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여성 집단 내부의 건강, 삶의 질 격차를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Avison, Ali & Walters, 2007).

을 탐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기반 하여 느끼거나 경험하는 안녕(well-being)의 수준을 지칭하며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긍정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정서(negative affect)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포함한다(Diener & Ryan, 2009). 여기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행복감(happiness)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Mroczek & Kolarz, 1998)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안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췄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안녕을 사용한다(Inglehart, 1990).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취업 등의 경제적 상태, 결혼 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Azizi et al., 2017; Jebb et al., 2020).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건강변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George & Landerman, 1984; Kim et al., 2017; Ngamaba et al., 2017).

그런데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건강상태에 비해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갖는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Shmotkin 1990)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존재한다(Diener & Ryan, 2009; Inglehart, 1990). 근래의 연구는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은 사실상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Meisenberg & Woodley, 2015; Mencarini & Sironi, 2012; Tesch-Römer et al., 2008). 각 사회마다 여성이 남성과 경험하는 삶의 조건과 자원의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주관적 안녕의 성별격차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나라별 차이를 탐구한 연구들은 한 사회의 젠더불평등 정도가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와 관련된

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Mencarini & Sironi, 2012; Tesch-Römer et al., 2008). 산업화된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젠더불평등이 완화된 경우 성별에 따라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등의 주관적 안녕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은 주관적 안녕수준을 갖거나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주관적 행복이 높았고(김경미, 2020)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고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선, 2019). 농촌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성이 행복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었다(양순미, 2004). 성별 간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20-44세,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45-64세의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성민현, 2012). 반면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이민아·송리라, 2014; 이병임·류형선, 2011)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여성의 주관적 안녕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청년 여성의 행복도가 청년 남성보다 높았고(김지경, 2018) 여성노인의 행복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박창제, 2020). 이렇게 주관적 안녕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였을 때의 성별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lfaro-Beracoechea et al., 2018; Lorenc et al.,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곧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즉 자신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생활에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을 일으키고 정신건강, 행복,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낮춘다(Wallace, 2012). 더구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면 타인에 대한 불신을 높아지고 이는 사회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알려져 있다(Lorenc et al., 2012). 범죄나 무질서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타인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기도 한다(Ross, 2011). 결국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자본, 사회통합의 수준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적 노출론을 바탕으로(Bird, 1999; Bird & Rieker, 200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간접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차별적 취약성접근에 의거하여(Roxburgh, 1996) 여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더 취약하여 남성에 비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인데, 몇몇 연구가 두려움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한 바 있다.

한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의 주관적 안녕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Sulemana, 2015).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에 더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함의하고 차별적 취약성론을 뒷받침한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경우 주변안전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서봉언·김경식, 2016). 여성에게 두려움이 남성보다 더 치명적 요인일 수 있다는 점, 즉 두려움이 높은 경우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나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영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afford et al., 200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 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성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성별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나 자신의 동네에서 밤에 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지 여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왔으며(Reid & Konrad, 2004) 여성의 범죄 일반에 대한 공포가 더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다(e.g., 박철휘, 2014).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범죄피해-두려움의 역설(victimization-fear paradox)이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장안식 외, 2011).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음에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자칫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비합리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두려움의 역설(victimization-fear paradox)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범죄는 남성이 더 많이 당하는 데도 여성이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모두 포함해서 본다면 일견 맞는 말로 보인다. 2018년에 일어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하는 흉악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87.6%이다. 그런데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을 포함하는 폭력범죄를 보면, 여성피해자는 전체의 33.1%이다. 두 가지 유형의 범죄를 모두 합치면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39.7%가 된다. 그러나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는 그 심각성과 파급력이 다르고, 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며,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박형민 외, 2010), 흉악범죄,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며 가해는 남성에게 의해 이뤄진다. 흉악범죄와 폭력범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여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깊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주요범죄(master offense)이며 여성과 남성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Dario & O'Neal, 2018). 성폭력 피해자 중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려움은 범죄 일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장된다. 성폭력의 그림자 가설(the shadow of sexual assault hypothesis)로도 불리는 이 현상은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의미한다(Ferraro, 1996).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의 유형별로 두려움을 조사해본 결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대학생은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통제되면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성별차이가 사라지거나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박철현, 2014). 여성과 남성 간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사실상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범죄에 대한 공포에까지 그림자(shadow)를 드리운다(김은영, 2012).

성별과 더불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고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로 알려져 있다(Collins, 2016; Ferraro & LaGrange, 1992; Greve, 1998). 이러한 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vulnerability)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일로 설명된다(Killias, 1990). 그러나 성별의 효과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두려움에 대한 연령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다르다. 국외의 선행연구는 연령의 효과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두려움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만, 응답자에게 특정한 범죄를 적시해서 묻는 경우에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Ferraro & LaGrange, 1992; Greve, 1998; Jeffords, 1983). 무엇보다도, 연령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의 단독 효과만을 분석해서는 정확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승하였으나 여성에는 연령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나(Schafer, et al., 200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젊은 여성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Kury et al., 2001) 연령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박철현, 2014). 그러나 이 연구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강도, 절도, 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장안식 외, 2011). 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장안식 외, 2011). 이와 일관되는 결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박순진, 2012). 이러한 결과는 청년 여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6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이다. KGSS는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시행된 조사이며, 2015년에 조사가 중단되었으나 2016년과 2018년에 다시 수행되었다(김지범 외, 2017). 표본은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표집된 가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가구원 중 태어난 해에 관계없이 조사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생일을 지낸 가구원이 최종 면접대상자가 된다. KGSS는 한국 인구에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자료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분석자료로 활용된 2016년도 KGSS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 2. 변수

##### 1) 종속변수: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주관적 행복감)이나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삶의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주관적 안녕이란 개인이 삶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정의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Easterlin, 1974).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합성측정(composite measure)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e.g., Azizi et al., 2017) 단일 문항으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는 측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e.g., Easterlin, 1974; Ryan & Dziurawiec, 2001; Veenhoven, 1991).

이에 따라 주관적 안녕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행복감은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며 “매우 행복(1)”에서 “매우 불행(5)”의 응답범주를 갖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요즘 귀

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에서 “매우 불행(5)”의 응답범주를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두 변수를 역코딩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범죄 일반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도시나 자신의 동네에서 밤에 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지 여부의 평가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왔다(Reid & Konrad,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귀하가 밤중에 동네에서 혼자 걷게 될 경우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0)”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1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성별은 여성이 1값을 갖는 이분변수이며 연령은 연속변수이다. 이 외에도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4분위로 구분하여 각각을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에 대한 무응답이 8%정도 있어 이 경우는 표본수의 탈락으로 인한 정보의 누락을 피하기 위해 무응답의 경우 독립적인 이분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무응답을 이분변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는 것은 무응답 대체의 방법 중 하나로 표본수를 잃지 않고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Fox-Wasylyshyn & El-Masri, 2005). 분석모형에서는 1분위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미만, 고졸, 대학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고등학교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결혼상태의 경우도 유배우자(동거포함), 사별, 이혼 혹은 별거, 결혼한적 없음이라는 네 집단으로 나누고 유배우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판단으로 “매우 안좋다(1)”에서 “매우 좋다(5)”의 범주를 가지는 변수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George & Landerman, 1984; Kim et al., 2017)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요 독립변수가 유의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분석방법

주요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간접효과 분석을 위한 소벨(sobel)검증법이다. 먼저, 회귀분석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가지의 모형을 위계적 방식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만을 분석하고 모형 2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하여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모형 3에는 연령, 가구소득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에 간접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Sobel) 검증법을 사용하였다(Baron & Kenny, 1986). 소벨 검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특정변수가 간접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e.g. Salwen et al., 2014), z값을 산출하여 검증하게 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a^2 SE_b^2 + b^2 SE_a^2}}$$

위의 공식에서 a과 b는 각각 주관적 안녕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비표준화 계수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성별의 비표준화 계수이며 SE는 각각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주관적 안녕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비표준화 계수 및 표준오차는 모든 독립변수가 통제된 최종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경우도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배경변수를 모두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및 가구소득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고 모형 2에서는 성별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초통계와 성별에 따라 평균 혹은 분포가 다른지를 t 검정 및 카이스퀘어( $x^2$ )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한 이변량 분석결과이다.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의 경우 각 주별범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통계적 검증은 원변수를 이용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관적 안녕의 전체 평균은 3.434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은 3.103, 여성의 평균은 4.94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다른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평가의 경우는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교육수준과 결혼상태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분포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표 2〉는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위계적 방식으로 변수를 투입하면서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안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모형 1의 결과를 보면 성별은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이변량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변수는 모형2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전환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이변량 비교분석

	전체(N=1052)		남성 (N=475)		여성 (N=577)		t/x <sup>2</sup> 검정
	평균/비율	표준편차	평균/비율	표준편차	평균/비율	표준편차	
주관적 안녕	3.434	0.819	3.408	0.833	3.455	0.807	
성별(여성=1)	0.54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4.113	2.791	3.103	2.381	4.943	2.831	***
연령	49.587	18.600	47.404	18.100	51.383	18.829	***
가구소득							**
1분위	0.239		0.198		0.272		
2분위	0.234		0.282		0.194		
3분위	0.217		0.221		0.213		
4분위	0.227		0.236		0.220		
무응답	0.084		0.063		0.101		
교육수준							***
고등학교 미만	0.488		0.423		0.542		
고등학교	0.108		0.099		0.116		
대학이상	0.403		0.478		0.342		
결혼상태							***
유배우자	0.587		0.594		0.582		
사별	0.117		0.038		0.182		***
이혼/별거	0.046		0.044		0.047		
결혼한적 없음	0.250		0.324		0.189		
주관적 건강평가	3.475	1.209	3.667	1.143	3.317	1.240	***

+p<0.1, \*p<0.05, \*\*p<0.01, \*\*\*p<0.001

주: 각 변수의 표본수는 무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분변수의 경우 표준편차를 표시하지 않음.

이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모형에 투입되면서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유의한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성의 주관적 안녕이 억압되었

3) 억제효과와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제3의 변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 이 둘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MacKinnon et al., 2000). 억제효과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기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우, 즉 독립변수의 계수가 증가하거나 유의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제3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예측타당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MacKinnon et al., 2000). 반면,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3의 변수가 포함되기 전의 모형에 비해 실질

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켰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표 2〉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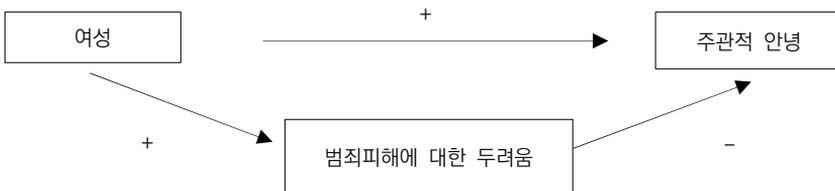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성별(여성=1)	0.047 (0.051)	0.133* (0.053)	0.202 *** (0.050)	0.243** (0.08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0.045*** (0.010)	-0.035*** (0.009)	-0.028* (0.014)
연령			-1.88E-04 (0.002)	-2.23E-04 (0.002)
연령 <sup>2</sup>			2.18E-04* (8.55E-5)	2.17E-04* (8.55E-5)
가구소득 (준거집단=1분위)				
2분위			0.137+ (0.073)	0.137+ (0.073)
3분위			0.025 (0.079)	0.025 (0.079)
4분위			0.259** (0.080)	0.258** (0.080)
가구소득 무응답			0.125 (0.095)	0.124 (0.095)
교육수준(준거집단=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0.089 (0.085)	-0.091 (0.085)
대학이상			0.121+ (0.062)	0.119+ (0.062)
결혼상태 (준거집단=유배우자)				
사별			-0.068 (0.088)	-0.068 (0.088)
이혼/별거			-0.372** (0.112)	-0.373** (0.112)
결혼한적 없음			-0.260**	-0.259**

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의성이 감소 혹은 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Baron & Kenny, 1986). 억제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제3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 효과의 맥락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주관적 건강평가			(0.084) 0.251*** (0.021)	(0.084) 0.252*** (0.021)
상호작용 성별*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0.011 (0.018)
상수	3.408*** (0.038)	3.546*** (0.048)	2.459*** (0.105)	2.437*** (0.111)
표본수	1046	1045	1044	1044
F	0.85	11.95***	20.23***	18.90***
R <sup>2</sup>	0.001	0.022	0.216	0.216

+p<0.1, \*p<0.05, \*\*p<0.01, \*\*\*p<0.001

[그림 1]은 억제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도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좀 더 분명한 관계가 드러났으며 이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억제효과를 말해준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에는 정의 관계, 즉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안녕이 더 높지만, 이러한 관계는 성별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경유하여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관계의 부적 영향으로 인해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고 무효화되었던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억제효과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한다(MacKinnon et al., 2000).



[그림 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억제효과

<표 2>의 모형 3의 결과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가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중에서는 연령, 가구소득 중 4분

위, 결혼상태 중 이혼 혹은 별거, 결혼한적 없음이 5% 수준이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연령은 주관적 안녕과 비선형 관계를 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은 감소하나 일정 연령 후에는 다시 상승했다<sup>4)</sup>. 가구소득 중 4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1분위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높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 결혼한적 없는 응답자가 유배우자 상태의 응답자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낮았다. 주관적 건강평가의 경우는 값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안녕도 상승하는 관계를 나타냈다.

모형4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성별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 이는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두려움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은 낮아진다.

〈표 3〉의 결과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간접효과를 갖는지 소벨(sobel)검정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표 3〉에 정리되어 있듯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켰다.

〈표 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 소벨(sobel)검증

	z 값
성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주관적 안녕	-3.773***

\*\*\*p<0.001

### 3. 성별,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표 4〉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1에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모형2에서는 연령과 성별 간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sup>5)</sup>.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4) 연령변수는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평균중심화하였다.

5) 예비분석에서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에는 유의한 비선형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모형에 연령제곱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변수의 경우도 평균중심화한 변수가 아닌 원변수를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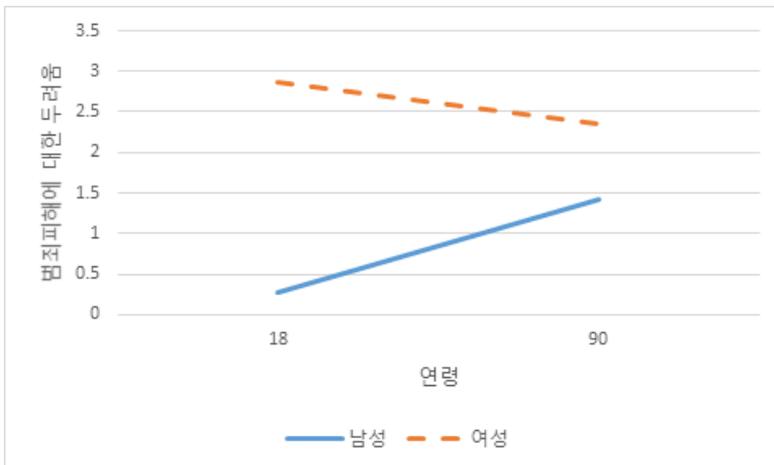
성별은 범죄피해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독립적인 효과는 없었다. 모형 2에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 성별과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4〉 성별, 연령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상호작용		
성별*연령		-0.023* (0.009)
성별(여성=1)	1.897*** (0.172)	3.000*** (0.481)
연령	0.004 (0.008)	0.016+ (0.009)
가구소득 (준거집단=1분위)		
2분위	0.571* (0.259)	0.562* (0.258)
3분위	0.449 (0.278)	0.457 (0.278)
4분위	0.045 (0.283)	0.054 (0.283)
가구소득 무응답	0.260 (0.343)	0.311 (0.343)
교육수준 (준거집단=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0.052 (0.304)	0.012 (0.304)
대학이상	-0.138 (0.223)	-0.154 (0.222)
결혼상태 (준거집단=유배우자)		
사별	-0.290 (0.303)	-0.093 (0.312)
이혼/별거	0.552 (0.402)	0.572 (0.401)
결혼한적 없음	0.577* (0.266)	0.639* (0.267)
주관적 건강평가	-0.145+ (0.077)	-0.151* (0.077)

	모형 1	모형 2
상수	3.042*** (0.639)	2.475*** (0.678)
표본수	1044	1044
F	12.09***	11.68***
R <sup>2</sup>	0.1233	0.1284

+p<0.1, \*p<0.05, \*\*p<0.01, \*\*\*p<0.001



[그림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림 2]는 연령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Y축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며, <표 4>의 모형2의 결과에서 상수, 연령, 성별,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는 0값을 갖는 것으로 전제한 후 계산한 예측치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감소하는데 반해, 남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두려움도 상승하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취약성을 느끼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연령대일수록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고령연층이라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 V. 결론

분석결과는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억제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변환, 계수의 크기가 커졌고 이는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켰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였을 때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행한 소벨(sobel) 검증에서도 성별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간접효과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성별과 두려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 두 집단 간 주관적 안녕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주관적 안녕에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낮추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는 없음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tafford et al., 200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주관적 안녕을 해치는 요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가 차별적 취약성 접근이 아닌 차별적 노출론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게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취약성 접근이 타당하지 않았다. 차별적 노출론은 생애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 위협 등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더 노출되고 이것이 여성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Bird, 1999; Bird & Rieker, 2008).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진 억제효과는 여성이 갖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여성의 주관적 안녕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여성들이 왜 더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지, 어떻게 두려움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보았을 때, 여성의 두려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지만 남성의 두려움은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 신체적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이 되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비록 횡단면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여성은 평생 동안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함의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만성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생각해볼 때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일상화된 두려움이 여성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해치는 불평등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안전을 해치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여성에게 범죄 일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젊은 여성일수록 두려움이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여성들의 두려움에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젠더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과정을 통해 성별화된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ader & Haynes, 2011).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존재가 되고 특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배운다. 성별화된 두려움(Gendered fear of crime)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게 일상적 두려움이 되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권인숙·이건정, 2013). 두려움이 만성적 긴장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통제와 규율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권인숙·이화연, 201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사회적 발생과 여성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때 여성의 주관적 안녕과 삶의 질은 더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활

용된 자료보다 최근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까지 수집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중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이 모두 측정된 조사자료인 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한 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측정방식이긴 하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른 두려움에 대해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특정하여 두려움을 측정할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더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 유형을 특정하여 두려움을 측정하고 이것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주관적 안녕에 나타나는 성차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높은 두려움은 주관적 안녕을 해치며 문제는 여성이 더 높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실에 대한 실질적 개입과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인숙·이건정(2013).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181-218.
- 권인숙·이화연(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2호. 85-118.
- 김경미(2020). “참여하는 청소년은 행복한가?: 사회참여 활동유형과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6권 1호. 141-164.
- 김은영(2012).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여성: 성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4호. 169-193.
- 김지경(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제25권 3호. 209-245.
- 김지범·김석호·강정환·박원호·이윤석·최슬기·김창환·김솔이(2017). 2003-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대검찰청(2019). 2019 범죄분석. <http://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에서 2020.06.07. 인출.
- 박병선(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및 성별 간 차이분석”. *인문사회* 21. 제10권 1호. 1121-1132.
- 박순진(2012). “여성의 연령별 범죄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0권 2호. 187-209.
- 박창제(2020). “성별에 따른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40권 1호. 163-178.
- 박철현(2014). “범죄의 두려움에 드리워진 성폭력의 그림자”. *피해자학연구*. 제22권 2호. 37-62.
- 박형민·황정인·탁종연(2010).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봉언·김경식(2016). “한국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6권 3호. 91-115.
- 양순미(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2호. 153-172.
- 이민아·송리라(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제37권 4호. 89-114.

- 이병임·류형선(2011).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행복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제10권 3호, 117-132.
- 장안식·정혜원·박철현(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제22권 3호, 291-326.
- 정순돌·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2권 4호, 249-272.
- Alfaro-Beracoechea, L., Puente, A., da Costa, S., Ruvalcaba, N., & Páez, D.(2018). Effects of fear of crime on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10(2), 89-96.
- Avison, W. R., Ali, J., & Walters, D.(2007). Family structur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demonstration of the impact of differential expo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 301-317.
- Azizi, M., Mohamadian, F., Ghajarieah, M., & Direkvand-Moghadam, A.(2017).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socio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 on individual happines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 Diagnostic Research*, 11(6), VC01-VC04.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ird, C. E.(1999). Gender, household labor,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amount and division of housework.”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2-45.
- Bird, C. E. & Rieker, P. P.(2008). *Gender and health: The effects of constrained choices and social poli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R. E.(2016). Addressing the inconsistencies in fear of crime research: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7, 21-31.

- Dario, L. M. & O'Neal, E. N.(2018). Do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sexual victimization differ between males and females?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Women & Criminal Justice*, 28, 19-42.
- Diener, E., & Ryan, K.(2009). Subjective well-being: A general overview.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4), 391-406.
- Easterlin, R.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pp. 89-125)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Ferraro K. F. & LaGrange, R. L.(1992). Are older people most afraid of crime? Reconsidering age difference in fear of victimization. *Journals of Gerontology*, 47, S233-S244.
- Ferraro, K. F.(1996).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ial Forces*, 75, 667-690.
- Fox-Wasylyshyn, S. M. & El-Masari, M. M.(2005). Handling missing data in self-report measur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8, 488-495.
- George, L.L. & Landerman, R.(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plicated secondary data 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2), 133-156.
- Greve, W.(1998).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Foresight, not fright.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ization*, 5, 277-309.
- Inglehart, R.(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bb, A. T., Morrison, M., Tay, L., & Diener, E.(2020).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Trends and predictors across the life sp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31(3), 293-305.
- Jeffords, C. R.(1983). The situational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the fear of crim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7(2), 103-111.
- Killias, M.(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 Victims*, 5, 97-108.
- Kim, B. J., Jun, H., Lee, J., Linton, K., Kim, H. & Browne, C.(2017). Subjective well-being in older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Effects of self-rated health and employment status.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32(8), 1937-1918.
- Kury, H., Obergfell-Fuchs, J. & Ferdinand, T.(2001). Aging and the fear of crime; Recent results from East and West Germany.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8(1), 75-112.
- Leone, J. M & Carroll, J. M.(2016). Victimization and suicidalit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4(6), 421-428.
- Lorenc, T., Clayton, S., Neary, D., Whitehead, M., Petticrew, M., Thomson, H., Cummins, S., Sowden, A., & Renton, A.(2012). Crime, fear of crime,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and wellbeing: Mapping review of theories and causal pathways. *Health & Place*, 18, 757-765.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eisenberg, G. & Woodley, M. A.(2015).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ender equal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 1539-1555.
- Mencarini, L. & Sironi, M.(2012). Happiness, housework and gender inequality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2), 203-219.
- Mroczek, D. K. & Kolarz, C.(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333-1349.
- Ngamaba, K. H., Panagioti, M. & Armitage, C. J.(2017). How strongly related are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7(5), 879-885.
- Rader, N. E. & Haynes, S. H.(2011). Gendered fear of crime

- socialization: An extension of Akers's social learning theory. *Feminist Criminology*, 6(4), 291-307.
- Reid, L. W. & Konrad, M.(2004). The gender gap in fear: Assessing the interactive effects of gender and perceived risk on fear of crime. *Sociological Spectrum*, 24(4), 399-425.
- Ross, C.(2011). Collective threat, trust,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3), 287-296.
- Roxburgh, S.(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3), 265-277.
- Ryan, L. & Dziurawiec, S.(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 185-197.
- Salwen, J. K., Hymowitz, G. F., Vivian, D., & O'Leary, D.(2014). Childhood abuse, adult interpersonal abuse, and depression in individuals with extreme obesity. *Child Abuse & Neglect*, 38(3), 425-433.
- Schafer, J. A., Huebner, B. M., & Bynum, T. S.(2006).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Gender-based contra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85-301.
- Shmotkin, D.(1990). Subjective well-being as a function of age and gender: A multivariate look for differentiated trend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3(3), 201-230.
- Stafford, M., Chandola, T. & Marmot, M.(2007).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 2076-2081.
- Sulemana, I.(2015). The effect of fear of crime and crime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 849-872.
- Tesch-Römer, C., Motel-Klingebiel, A., & Tomasik, M. J.(2008).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Comparing societies with respect to gender e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 329-349.
-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Wallace, D.(2012). Examining fear and stress as mediators between disorder perceptions and personal health,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Science Research*, 41(6), 1515-1528.

Abstract

## Gender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and Subjective Well-being

Min-Ah Le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ssociations among gender, fear of crime and subjective well-being using an integrative approach.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sobel test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ender and subjective well-being, but it became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fear of crime, which means that there was a suppression effect. In the model including fear of crime as a covariate, women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than men. A sobel test proved that fear of crime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between gender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fear of crime showed that women had a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than men,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age. In the findings, women's fear of crime slightly decreased as age increased while men's fear of crime increased as age increased. Nevertheless, women's fear of crime was higher than men across all ages. The findings suggest that fear of crime is an important factor shap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women. Lowering women's fear of crime by decreasing sexual crime against women should be needed for better quality of life for women.

**Keywords :** Gender gap, subjective well-being, fear of crime, suppression effect, differential exposure

---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ety, Chung-Ang University